[상황공유]

1. 10월 28일 전체회의 주요 결정사항

1) 주민발의안에서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로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든 주민발의안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의견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2) 경기도학생인권조례보다 더 나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효하다.
3) 근거 없는 조례안의 훼손, 후퇴는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청 자문위안에서 주민발의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수용해서 주민발의안을 보완할 수 있다.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 중 성적 지향, 임신·출산'의 명기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 종교 자유 조항도 조정할 수 없다.
- 두발·복장 관련 조항에서 개성실현권에 대한 제한을 불허하되, 교복을 입는 것도 금지하는 듯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자구 수정은 열어둔다.
- 집회 자유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다만 다른 학생의 인권이나 수업권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의 추가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2. 추가로 확인된 의회 상황

지난 8일, '서울교육누수방지위원회' 회의 앞부분에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향을 확인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홍이, 김형태, 윤명화, 서윤기 의원 네 사람이 참석했고요.
12월 본회의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무난히 내다본다고 얘기가 되었고요. 우선 행정감사가 끝나고 교육상임위가 잡히면 우선 논의하고 간담회 일정도 그때쯤 잡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보수단체 쪽에서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의원실까지 찾아오기도 하는 등 다각도의 압박이 진행되고 있어 의원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성적 지향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도 의견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김상현 교육위원장도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김형태 의원은 명확한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으니 전체를 잃지 말고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식의 제안을 하셨고요. 윤명화 의원은 가톨릭 신자여서 그러신지 종교적 신념과의 긴장 부분을 내비쳤고, 최홍이 의원은 '성적 지향을 드러내지 않는 게 더 보호가 되지 않겠나. 포괄적 표현으로 차별금지 조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식의 자중지란을 만들어서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보수쪽의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의 할 일]

1) 문자로 격려와 촉구 메시지 보내기

보수단체 쪽에서 엄청난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무소속,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통과, 원안 통과' 등을 촉구하고 격려하는 문자와 메일 보내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비롯해 교육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의회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1차 대응은 '격려와 응원'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추가로 논의가 진행된 다음에도 의회가 조례안을 훼손하려고 할 때에는 '적극적 비판' 모드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각 단체별로 동료들에게 요청하셔서 문자 보내기, 메일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자를 보내실 때는,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대략적으로라도 밝히면 좋겠습니다. '초3 학부모', '구로구 학생', '00교사', '00시민', '00 연구자' 등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사연도 구체적일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자메시지의 예>

서울학생인권조례 연내 제정! 서울시의회의힘을 보여주세요! - 서울시민 000	경기도보다멋진서울 학생인권조례를만들 어주세요!주저없이,후 퇴없이GoGo~ - 00중 학생	차별없는학교, 서울학생인권조례로! 차별금지조항 원안을지켜주세요~ - 중2 학부모

성소수자학생이경기 도에선보호받고서울 에선차별받으면안되 겠죠?차별금지조항 원안통과기대합니다! - 00중 교사	비혼모학생에대한차 별금지,학습권보장은 교과부도인정하고있 습니다!차별금지조항 원안통과! - 보내는 사람

☞ 좀더 긴 호소 글은 의원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의원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따로 첨부했습니다. 문자나 메일을 보내실 때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만 보낼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만 보낼 경우, 전체 의원들에게만 보내실 경우를 구분해서 내용을 조금 달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으로 학생인권조례 반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소용이 없을 듯 하고요. 그래서 교육위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의회 자유게시판에도 의견을 올려주세요.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는 의견이 이미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 의회 자유게시판
http://www.smc.seoul.kr/program/board/list.jsp?menuID=001005006&boardTypeID=60

2)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한 의견서 보내기

- 성적 지향,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집회자유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한 학생인권조례 본부 쪽의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의견서에는 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경기도·광주 조례와의 비교표, 국제인권기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학교현장 교사의 목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의견서는 몇몇 분들의 도움을 받아 제가 시급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가인권위 의견 발표 요청
- '차별금지' 조항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만큼, 지역별 법제의 편차를 없앤다는 차원에서도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성적 지향'이 삭제되면 안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가 의회 쪽에 전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 인권교육과장과 통화했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나 보수쪽 인권위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 공식 의견서 발표가 안 되더라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와 교육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라도 의견을 전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4) 조례안 수정안 만들기
주민발의안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청 자문위안에서 받아들일 부분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동시에 후퇴돼서는 안 되는 부분도 명기해야 합니다.

☞ 이 부분은 기초 자료를 만들고 다음 회의 때 함께 검토하도록 해요.

우선은 이 정도로 시작을 하기로 하고요.
의원들에게 보낼 이메일 홍보 전략을 추가로 수립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문자 보내기 모드로 출발해주세요^^